

“삼성전자 라인이전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윤장현시장, 광주사업장 찾아 지역민 우려 전달 市, 협력업체 지원·연구인력양성 등 대응책 마련 나서

광주시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미 이전 계획이 확정·발표된 뒤 광주시가 대응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일부 시설 이전과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 1개 라인 이전 계획이 공개되자 지난 8일 가전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생산라인 이전으로 비게 된 곳에 삼성전자의 자동차 전장사업과 스마트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생산라인 확보를 회사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유휴설비 매각도 앞선해주시기로 했다. 지역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소 설립과 연구인력 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찾아 회사 임원진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삼성 측에 대기업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추후 광주사업장의 라인 이전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러한 요청에도 생산라인 이전 계획 자체로 이미 지역 경제 버팀목에 금이 갔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생산라인의 추가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유휴설비 이전으로 고용이나 생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고, 향후 생산라인 이전에 대한 답변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칫 감정만 상

하고 우려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이번 주 중 회사 입장을 정리해 답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냉장고를 비롯해 세탁기, 에어컨 등 저가형 생산라인의 순차적 해외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1,9000진공청소기와 저가 냉장고, 세탁기도 멕시코와 베트남 등지로 생산라인을 옮겼다. 베트남 공장은 광주공장 생산품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시기의 문제지, 광주사업장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생산라인 이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에 삼성의 자금 모양새는 그야말로 보여주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1989년 설립된 광주사업장에는 현재 4900명이 근무중이며 연매출은 4조 8000억원 규모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프레사 등을 주로 생산하며,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지방세도 300억원에 육박해 광주권 사업체 중 1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의 8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방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사업장 일부 라인 베트남 이전설과 관련해 사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박성수 후보자 업무수행 특별한 문제 없다”

시·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 청문 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 후보자에 대해 “업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조직·경영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통합전)광주발전연구원 자문위원, 전남발전연구원 이사로 활동하는 등 연구원 사정에 정통해 업무수행 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부처 활동 경험에 비해 각종 위원회와 사회단체 활동 참여 과정에서 정치변형성 논란을 일으

킨 점, 연구활동을 소홀히 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도의회는 별도 본회의 대신 같은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해 청문 절차는 마무리됐다.

연구원 이사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소집해 최종 의견을 나누고 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임명안이 의결되면 연구원은 오는 15일께 박 원장에 대한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후 초대 원장에 오른 허 전 원장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한 시·도 의회 등의 압박에 지난달 임명 20일 만에 사퇴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택시 모니터 모집

난폭운전·승차거부 등

200명이 서비스 점검

광주시에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서비스 점검 모니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며,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니터 모집은 난폭운전과 무분별한 경적기 사용, 승객 응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시내버스를 모니터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 운영했으나 올해는 모

니터 대상을 택시까지로 확대해 200명으로 늘렸다.

점검 요원은 승차거부 행위, 거스름돈 미지불, 함승행위 등 불법행위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 관련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가 월 2회 이상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매월 1만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모니터는 선발해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친절도가 예전보다 향상됐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모니터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달부터 교육비 부담 어떻게” ... 젊은 엄마들 ‘발동동’

시의회, 형평성 앞세워 재심의 처리 안해

광주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광주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끝내 중단됐다. 광주시의회와 지난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598억)을 삭감한 이후 추가적인 예산 재심의·의결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통상 매월 10일 전후로 이뤄졌던 시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사업비 배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심의를 해달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안전을 상징하

지 않고 본회의를 끝냈다.

시의회가 이날 예산 재심의 안전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10일 전후로 이뤄졌던 광주지역 306개 유치원(공립 126·사립 180개)에 대한 보육료·방과후교정비 지원도 사실상 끊겼다.

광주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장 200여명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복원을 촉구했지만 시의회의 입장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2만3907명을 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1인당 29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예산이 없으니 유치원도 받지 마라’는 식의 형평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산 재심의 요구안 처리에 소극적인데다, 향후 안전 처리 여부도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입장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시의회 분위기에 ‘재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71조)을 고려하면 조속한 처리도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최근 광주·전남 교육청 등 17곳에 공문을 보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사태를 의식한 조치로

교육청은 해석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같은 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해 교부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지만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개월 뒤부터 학부모들의 보육료 카드 결제가 중단되지만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여유가 없다는 게 현장 시각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통상 20일~25일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대금을 선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어업 경쟁력 강화 299억 지원

다목적 인양기·부잔교 확충

연안어선 499척

전남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치 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에 299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다목적 인양기(91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114억원 등 어업 기반시설에 205억원, 기관교체·유류절감장치·LED 등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치에 49억원, 연안어선 100척 감척에 4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에 다목적인양기 764개소, 다기능 부잔교 382개소,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치 1468척, 연안어선 감척 499척 등 4개 사업에 29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어촌 고품질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선박의 상시 입출항 및 어업인의 안전한 승하선에 필요한 다목적 인양기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어업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된 어업활동 보장과 생산비 절감으로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한·중 FTA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뒤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